

목어

너그럽게 살 수 없을까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인다. 수돗물이 안나왔다고 분노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다고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이유도 없이 분노한 시민이 누구를 해롭게 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분노한 야당의원들이 거리를 쏘다니면서 어쨌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끔찍하게는 부모가 자신을 출세했다고 분노해서 토막살인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도무지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이토록 우리들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루도 성한 날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해 받으면 갈등을 갖는다. 이런 갈등의 표출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 분노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역동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모순되게도 사람들은 무한한 욕구의 충족과 더불어 아주 담담한 마음을 원하는다. 무한정한 욕구의 충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충족에 이르기까지 제동이 걸리는 것이 많다. 불가능한 것을 충족하기를 원하거나 제동이 걸린 욕구를 한결같이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도 모순되게 담담함을 기원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욕구는 결코 한마음 속에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쟁을 통해 끝없는 욕구 충족을 원하거나 아니면 담담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 아닐지라도 자아의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평온해진다. 마음을 비우고 한 진정된 뜻도 그런 모순을 읽으라는 뜻일 것이다.

분노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욕구와도 관계가 있지만 사회적인 병리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 둘 수 없는 고리는 개인의 분노를 정당화 하거나 축소시키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

욕구들을 무한정 갖고서는 느긋해지기는 어렵다. 답답해지는 과정은 어렵다. 그러나 담담한 경지에 이르면 분노로 얼룩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을 것이다. 훌훌 털어버리고 좀 느긋하게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의 바른 뜻을 바로 새겨 스스로를 실천시키는 용기를 가져보자.

이근후(이화대학교 교수·본지 논설위원)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

“청정국토-무소유 실천 불교 환경운동의 길”

8월 30일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189개 종교·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진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에서는 드물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가 적극 참여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창립 과정에서부터 불교환경단체인 지리산살리기·법백지화추진·법불교연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연대활동을 주도해 불교환경운동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8월 31일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수경스님을 만나 '국민행동'의 창립 의의, 이후 활동 계획 등을 들었다.

— '국민행동' 창립의 불교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지리산엔 건설 문제는 단순한 지역환경문제를 떠나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한 몸이라는 불교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 사는 스님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사(山寺)도 이전 환경훼손은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환경단체가 갖가지 사안으로 지친 상황에서 불교계가 나선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범종단차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동참한 것도 의의가 큼니다. 이번 활동이 스님과 불자들의 환경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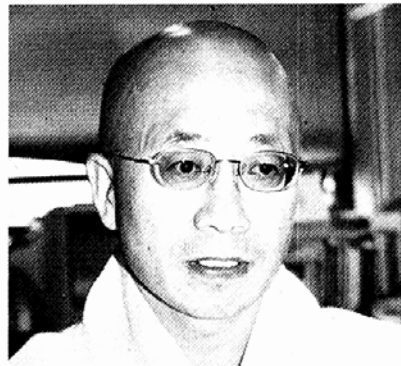
— 스님께서 수석 응답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은사로 출가하신 후 30여년간

일관되게 제방 선원에서 정진해 온 수좌로서 스님들의 신앙이 두터우세요. 환경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활동 소감이 있다면.

▲산수(山水) 좋은 선방에만 있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줄도 몰랐어요. 그러던 중 지리산 살리기 바로 옆에 땅이 생긴다고 해서 진주환경연합 사무실에 들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시다. 자기 일도 아닌데 정성을 다하는 열정을 보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할 입장에서 부끄러웠습시다. 몇 달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사심없이 세상을 맑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시다. 이런 일을 사심은 종단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종단의 소극적인 지원도 아쉬움으로 남습시다.

— '국민행동'에서 불교계는 주로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지리산이 자연환경은 물론 민족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담건설, 위락시설 조성 등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리산법건설 백지화 운동 차원을 넘어 지리산과 낙동강을 함께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확대 나가면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환경교육 실시 등 불자들의 환경의식 계고를 위한 캠페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과 힘을 합쳐 환경



수경스님은 30여년 제방선원에서 수행에 전념해온 수좌답게 지기를 맑히기 위한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80여 개 사찰의 환경보존 노력에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리산 문화제와 종교지도자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 촉구 기자회견,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수자원정책' 범국민토론회 등 불교계의 환경위상과 힘이 필요한 부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불자 및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마음이 맑아야 국토가 깨끗해진다'(心淨 國土淨)는 가르침처럼 불자들이 먼저 마음을 맑히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수행에 매진할 때 환경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스님들의 수행가풍이 되살아났으면 합니다. 불교인단체 청정·무소유 정신으로 자연을 아끼고, 시민들도 한 방울의 물도 아끼는 생활환경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UN 밀레니엄 종교지도자 평화선언

우리는 인류 사회가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조력할 강력한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지도력을 요구하는 인류사의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종교 및 영성지도자로서, 우리는 지구 위의 평화와 인류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우리의 특별한 사명을 자각합니다. 위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명을 자각하고 결의합니다.

- 1. 모든 차원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유엔과 협조하고 파트너가 될 것을 결의합니다.
2. 모든 생명체와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존엄한 권리에 대한 깊은 경의심을 포함하는 영적인 가치에 대한 사명의 부활을 요청할 것을 결의합니다.
3. 종교적 차와 민족적 차이로 인한 분규를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을 비판할 것을 결의합니다.
4. 모든 종교 전통과 모든 민족과 국가의 성인들에게 상호 옹호와 화해에 참여하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를 촉진하도록 호소할 것을 결의합니다.
5. 모든 개인과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인류의 복지에 대한 공동 책임을 깨닫고, 종교와 인종과 성과 민족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교육권과 의료권,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자각하도록 할 것을 결의합니다.
6. 빈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역전시켜서 국가 내에 그리고 국가 간에 부의 보다 동등한 분배를 촉진시킬 것을 결의합니다.
7. 우리 공동체에 자연환경과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환경보존과 복원이 모든 개발 계획과 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긴급한 요구라는 것을 교육할 것을 결의합니다.
8. 인간 사회에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존경과 관용 그리고 이해라는 도덕적 원칙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신앙공동체에 호소할 것을 결의합니다.
9. 모든 국가들이 유엔에 협력하여 지구 생명체의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 모든 핵무기와 화학 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의합니다.
10. 평화로운 사회의 토대인 내전적 평화의 가치를 우리 공동체에 더불어 공유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종교 및 영성지도자로서 우리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에게 차이가 있는 곳에는 대화에 동참하고, 폭력을 삼가고, 동정심과 존경을 실천하고,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지지하도록 호소하는 바입니다.

번역: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문자배척 풍토가 선시연구 가로막아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명시를 살펴보면 유명한 고찰이나 고요한 산사를 소재로 하여 읊은 시이거나 깊은 사유를 통한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를 읊은 철리시(哲理詩)가 많다. 왕유(王維)의 대표적인 시로 인구에 회자하는 '과향적사(過香積寺)', '망천집(望川集)'에 나타난 20수의 시가 시선일여의 세계를 읊은 그림같은 선시이고, 소동파가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상종총각(常總 照覺)선사(1025-1091)에게 준 '종림총장로(贈東林總長老)', '제서림벽(題西林壁)', '여산연우(廬山煙雨)' 등이 그렇다. 신라 말기, 고려시대의 한시문학을 대표하는 문창후, 최치원, 이규

25선시 읽기(4)

보 또한 그렇다. 조선시대 송유역불의 국시(國詩)에서도 시단을 이끌었던 문형(文衡)인 다재학을 지낸 대가들도 선학에 조예가 깊었고, 고승과 교유가 잦았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불교를 금기시하면서도 선사들의 시문집에 서문을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곳에 자신들의 문학과 선시론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발간 후 2세기 이상 조선 한시 학승의 교과서 역할을 한 <소화시평(小華詩評)>에 수록된 478수 가운데 산사(山詩)와 스님을 소재로 한 시가 무려 83수나 되고 시승(詩僧)의 시가 8수(시평사(東林寺)의 상종총각(常總 照覺)선사(1025-1091)에게 준 시가 4수가 소개되고 있다. 이 책에서 흥만중은 명시의 선택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시는 뜻이 말 밖(言外)에 있고, 함

축미를 풍부하게 가진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만약 시어의 의미가 겹겹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말하여 숨김이 없다면 아무리 사조(詞藻)가 굉장하고 아름다우며, 화려하다고 하여도 시를 아는 자라면 좋다고 하지 않는다." 선학에 조예가 깊었던 흥만중의 이러한 시론은 선시론과 일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 한시문학계에서 신라나 고려, 조선 시대의 사대부 시인의 한 시 작품을 연구하는 논문 가운데 작품론이나 작가론에서 불교(선)적 측면에서 고찰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선가문학이 우리 문학사의 주류는 아니지만 국문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선시문학에 대한 이해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선시문학에 대한 소외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것은 선시가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형중 명성어교 교본사 문학박사

문제를 밝히는 일은 우리가 선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선시의 난해성이다. 선시를 학습하고 이해하려면 한시와 선에 대한 상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선지(禪指)가 있어 한화(한시) 실력이 부족하고, 한시에 능하면 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선시에 대한 공부할 엄두 내지 못한다. 실형 선지와 한시 능력이 겸비했다 하더라도 현대적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면 이 또한 불가한 것이다. 둘째, 선시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못했다. 선시 읽기에 기초가 되는 정선된 선시집과 해설서나 선시 이론을 정리한 선시문학 개론서가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글세대에서

선시를 연구하려는 학자도 적고, 연구서도 미미한 실정임으로 일반 대중이 선시를 읽고 싶어도 눈 뜬 장님이 되고 만다.

셋째, 선시를 읽기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선시의 언어가 일상어의 논리적인 시어와 구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시에 나타난 선시어를 종합, 분석하여 선시어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뜻을 밝혀주어야 한다.

끝으로 선시는 선의 깊은 체험과 사유를 나타내고, 선종의 전용적인 화두(用頭)와 고사(故事)를 용사(用事)한 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대단히 난해하고, 깊은 철리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선시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1700공안(公案), 즉 화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화두시(話頭詩·頌古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선가의 병폐 중의 하나가 선가의 종자가 불립문자 교의별전을 표방한다는 이유로 막연히 선의 언어나 화두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이해, 해설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면 늘 선적 수행과 체험도 없는 자의 지적임으로 격하하기 때문에 선시나 선이론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서술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헤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 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絶망대고 대륙의 중앙으로... 古都의 땅을 찾아... 日本 佛教 文化 探訪 5일 ₩1,050,000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일정: 서울-방콕-양곤-판다-만달레이-민곤-헤호-양곤-방콕-서울
출발일: 9/20일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판다: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고다, 남파야, 쉐산도등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73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투스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민군 종, 민군 대탐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쉐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미얀마의 수도 양곤: 와불이 모셔진 차욱투스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파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터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등.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오사카: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恨이 서린 땅
교토: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나라: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일정: 서울-오사카-교야-나라-교토-사가-오사카-서울
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출발일: 9/1, 13, 22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일정: 서울-네팔, 카트만두-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자유일정)...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출발일: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
일정: 델리-바라나시(죽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 왕사성, 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 아쇼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 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롬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원, 전용차량
출발일: 15명 이상 수시 출발
불교 최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시황제의 병마중...비림, 대안림 등 탐방
일정: 서울-서안-돈황-양관-서안-서울
포함사항: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출발일: 9/18, 9/25, 10/2, 10/9

※ 10년 전통의 헤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